

- 조사일자 : 2003. 2. 6.
- 조사장소 : 제주시 용담동 양창보 심방댁
- 조사자 : 김현선 외
- 구연자 : 양창보
- 채록(TAPE) · 전사 : 강정식

동동네는 납신 자(申字), 신씨 임관중. 우령이는 창가지여.¹⁾ 저 이싱굴은²⁾ 차가지.³⁾ 차가진데 옛날 홍괄호라는 베실을 가진 하르방이 잊어십니다. 잊었는데 그 하르방이 어디에서 탄생(誕生)을 허엿는가 허면은 홍목사(洪牧使)가 제주도(濟州島)로 도임(到任)을 허여서 기생첩(妓生妾)을 허여서 난 것이 아덜을 나난(낳으니). 첨에 주손이난(子孫이니) 둘앙(데리고) 가지고 못 허고, 그냥 제주도에 떼여동(떼어두고) 가부니까(가버리니까). 그때에 홍괄호 하르방이 어디 사는고 하니, 이싱굴 우에 높은 무를이라는 무를에 쪼끄만 혼 초가집 혼나 지언, 거기서 살명(살면서). 게서(거기서) 장가를 갖는데 뜰은 혼나 나서(낳았어).

경(그리) 허연 홍목사가 서울로 올라가난, 간 다음에 홍목사 조카가 따시(다시) 제주도 목사로 내려오게 데난, 조카를 불러놓고,

“나가 목사로 들어가면은, 아무 때 내가 아덜을 하나 낳으니(낳아두었으니) 그거나 혼번 촇아보라.”

“경 허겟습니다.”

목사로 부임(赴任)을 허니, 선배(先輩) 후배(後輩) 가마를 둘러타고, 제주도 일주(一週) 순력(巡歷)을 떡 돌아오는디, 동(東)으로 들어서 서(西)으로 쑹 웃한질로⁴⁾ 돌아오단, 저 광령(光令)⁵⁾ 높은, 이싱굴 높은 무를에 떡 닿으니, 난데없이 쏘나기비가 쏟아진다.

“아이고, 이거 가지 못허겠습니다.”

“그럼 여기 군막(軍幕) 지어라.”

헤 가지고, 지어놓고, 비 으지(依支)를 허여.⁶⁾ 목사님이 좌정(坐定) 히연(해서) 떡 앗앗더니, 그옆에 보니 초막(草幕)이서 불이 바롱허게(희미하게) 싸지난(켜지니), 아이고 영문(營門) 도사령(都使令)보고,

“저기 가봐라. 어떤 사름이 살고 잇느냐?”

떡 가니, 떡 허니 모시명.

“이름이 머냐?”

“나 홍괄호라고 헙니다.”

“아이고, 이거 그렇구나.”

해서 목사님안티,

1) 창가지 : 장(長) 가지. 곧 장손(長孫)에 해당하는 가계(家系)라는 말.

2) 이싱굴 :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2리의 옛 이름.

3) 차가지 : 차(次) 가지. 곧 한 조상에서 비롯된 후손 가운데 버금에 해당하는 가계(家系)라는 말.

4) 웃한질 : 위쪽 한길.

5) 광령(光令) :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.

6) 비 으지(依支)를 허여 : (~에 의지하여) 비를 피하고.

“수실은 홍괄호라 헙니다.”

“아이고, 내가 쓰는 사름이 저 사름이로구나. 가서 낼 낮만 뛰거든 관덕청(觀德亭)으로⁷⁾ 들어오라 영 허연, 들어오게 허라.”

혜연, 성안으로 들어오단 관덕청에 떡 좌정혜연. 뒷녁날(뒷날) 흔 정오(正午)쯤 뛰여가니, 오시(午時)가 뛰여가난, 홍괄호가 들어간, 의복(衣服)도 너무나 남루(褴褛)하고 들어갈 수가 엉어. 서문(西門)으로 드난(들어가니) 문지기덜이 들어오지 못 허게 허난.

“아이, 목사님이 오랜(오라고) 헨디(하였는데) 무사(왜) 나가 못 들어갑니까?”

경 허난, 그 서문지기 수령(使令)덜이 목사님안티 가서,

“어떠흔 거지 닮은 사름이 문에 와서 들어올려 헙니다. 목사를 베겟습니다(뵙겠습니다) 허니 어찌 허민 줍니까?”

허니,

“가서 데리고 오너라.”

데려간 보니 참 시상이(世上에) 기가 맥히거든(막히거든). 웃이라는 게 잇십니까. 청(妾)에 손(孫)이라 친척(親戚)도 없고 형제간(兄弟間)도 아무것도 없으니, 어느 땅이 있나 [不聽]. 그래도 거 비 의지만 허여 떡 살아가는데. 아이고 홍목사,

“너, 이디서(여기에서) 가만이 잇어라.”

그디서 웃도 헤여주고, 좋은 맛 좋은 반찬을 출리멍(차리면서) 맥여도 주고, 영 허단 근 일궤(이레)를 살아가니,

“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.”

집으로 돌아가는 흔 일궤(이레) 사이에 관속(官屬)덜을 보내여 놓고, 그 사는 디 집을 짓둬. 물로는 천냥(千兩) 짜리 허고 집은 백냥(百兩) 짜리로 떡 좋은 터를 봐서 큰집을 하나 지어주고, 큰, 먹을 군량미(軍糧米) 양석(糧食)덜은 광 ?득이(가득하게) 딱 데며주고(쌓아주고). 간 보니깐, 하후, 이런 부자로 뛰엿구나, 허연.

뜰을 난 것이 얼마나 갈람스러와신디.⁸⁾ 금(金)이라. 커가난(커가니) 흔 술, 두 술, 열 다섯 넘어 가니 어떤 남자도 그 홍괄호 뜰안티는(딸에게는) 덤빌 수가 없고. 하도 키 크고 힘때 씨난(세니), 시집도 못 가고. 어디 상여소리만 나민, 행상(行喪)소리만 나민 가서 선소릴 다 허고. 그 가서 산담을⁹⁾ 둘러노면은 컷돌은¹⁰⁾ 큰돌만 세와 놓거든. 남자덜 들르지 못허는 돌이 그 홍괄호 뜰이 가서 그 돌을 들러단(들어다가) 컷돌도 딱딱 놔주고. 영 허면서 살단(살다가), 그 신칩잇 하르방은 하도 가난허난 장개를 못 가난, 그 홍괄호 뜰안티 조원(自願) 사우(사위)를 헤연 신칩잇 하르방을 떡 돌아가난(데려가니), 가저 홍괄호 뜰님아기는 시집을 가난. 남편이난 남편을 뜨라서 남편 집일간 베려보니(살펴보니), 아, 마레이는(마루는) 별 지는 집이라. 아이 별 바는(보이는) 집이.

“하이고, 이 집일(집엘) 어떻(어떻게) 삽니까. 그룹서(갑시다).” 허연.

“가게.”

친정에 돌아단(데려다가) 이젠 외손(外孫) 봉사(奉祀)를 허게 뛰연. 외손 봉사를 헤여 살아가는 디, 그게 홍괄호 홍판사(洪判書)가 그 청에 난 손인디, 그 홍씨할망이 큰 일월(日月)로 [不聽]. 애

7) 관덕청(觀德亭) : 제주목(濟州牧) 관아(官衙)에 있는 정자(亭子).

8) 갈람스러와신디 : 사랑스러웠는지.

9) 산담 : 봉분 주위에 두른 돌담.

10) 컷돌 : 봉분 주위에 돌담을 둘러쌓아 산담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바깥 네 모퉁이에 세워두는 커다란 바윗돌.

기도 없고, 영 헤서 츄 츄 외손 봉사로 내려오는 게 신집이 줄이 범언, 경 헤도 그 조상덜을 위로 (慰勞)하여 가난 부제(富者)로덜 잘 살아가니.

신집잇 하르방은 어디를 농사(農事)를 허는고 허니, 저 어시성봉(御乘生峰)¹¹⁾ 굽 아래 걸시오름 이라 헌 오름이 잇는다. 그디 가서 큰 테역밧디다(잔디밭에다) 이제는 쉐(소)를 내여놓고 밧을 가는다. 한참 밧을 갈암시니(갈고 있으니), 정의(旌義) 가시오름 가시리(加時里)¹²⁾ 강당장 뜨님아기는, 남, 메누리는 남편 병(病) 나난, 대정(大靜)에 약(藥) 지레(지으러) 가는다. 아, 이때 여자가 활 활활허게 걸엄시난(걷고 있으니), 아이고 신집잇 하르방도 아무딧 하르방 모양, 그 넘어가는 여인네 얼굴에 반허연. 밧갈단(밭갈다가) 기냥 장기(쟁기)도 내불어두고 그 여자 뒤에 조차간(쫓아가서). 막 가도 하도 이 여자는 그냥 앞에 걸음만 걷지 훈번 되돌아보는 일이 엇어. 아이고, 어느만쯤 가는고 허니, 저 지금의 경마장(競馬場)¹³⁾ 아래, 옛날은 원(院) 동네가¹⁴⁾ 잇수다. 원이라는 디가 잇는다, 그 옆에 가면 막산이구석이라는¹⁵⁾ 데가 잇는데, 그??지도 가도 훈번 뒤돌아보질 아니 허난, 뒤에 가멍,

“아주망,¹⁶⁾ 아주망!”

허면서 이제 불른(부른) 모양이라. 확 돌아산(돌아서서),

“아이고, 나 불럼수가(부릅니까). 어떻 허연마씸?”

“하도 얼굴이 고난(고우니) 얼굴에 호탕해서(홀려서) 나 여??지(여기까지) 뜨라 와시메.”

영 허난,

“아이고 경(그리) 허꽈(합니까)? 이레(이리) 옵서(오세요), 이레 옵서.” 허연.

아이고, 그 여자도 얼마나 힘때가 씬지(센지), 그 신집잇 하르방을 막산이구석에 가서 큰 남(나무) 이렇게 해가지고 그디 간 똑 딜여냔(들여놓고) 똑 허게 젭져돈(접히어두고), 딜여놔돈 이젠. 아니 하르방은 그디 젭져부난 오꽃허게 풀엉 나오지도 못허곡. 아, 이젠 서르레(서쪽으로) 홀홀허게 가단(가다) 보니, 절로(저리로) 어떤 남자가 걸어오라 가난,

“아이고, 그런 게 아니라. 저 막산이구석에 [不聽] 사람이 비명 소리가 납디다. 나는 연약한 여자로서 차마 들어갈 수도 없고, 가당(가다가) 보면은 비명소리가 날 테니 가서 사름 혼나 살려동(살려두고) 갑서.”

지가 훈 걸. 경 허여 오란 보니, 낭(나무) 거림에 딱 젯져놓고, 사름은 그냥 빠져나가도 못허염 시난(못하고 있으니), 그걸 젯혀냔(잦혀놓고), 이젠

“이레 나옵센(나오시라고).” 허연.

아, 이젠 그 하르방이 밧가는 디 간 보니까, 소도 도망가버리고, 밧 가는 장기도 문(모두) 부서져 버리고, ‘아이고, 이거 아이(아니) 웰로구나.’ 영 허여 그 해 농수도 못 짓고, ‘이건 어떻 허민 좋고.’ 영 허연, 그 하르방하고 서로 언약(言約)을 맺어시면은(맺었으면) 신집잇 하르방이 죽을 건

11) 어시성봉(御乘生峰) : 한라산 북서쪽 봉우리로, 제주시 해안동 산 220-12번지 일대에 있다.

12) 가시리(加時里) :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.

13) 경마장(競馬場) :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제주경마공원(濟州競馬公園).

14) 원(院) 동네 :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와 소길리 경계에 걸쳐있던 마을. 조선시대에 제주목과 대정현 사이의 이동경로인 이곳에 원(院)을 두었던 데서 원동(院洞)이라 하였다. 4·3 당시인 1948년 주민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마을이 사라지고 말았다.

15) 막산이구석 : 남제주군 안덕면, 옛 중문면(현 서귀포시 중문·강정·하원동 등) 일대에서 전승되는 장사전설의 주인공 막산이가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곳.

16) 아주망 : 아줌마. 아주머니.

디. 하르방이 죽을 건디. 서로 언약을 아이 맷어부난. 약 지언 간 먹도 못하고, 가시오름 강당장
집이 며누리가 그 집이 남편은 죽어 불고.

하도 흉년(凶年) 드난. 이 하르방이 포목(布木) 장소를 허연. 포목을 잔뜩 걸머지고(짊어지고)
물을 많을마다

“미녕도 삽서. 베도 삽서.”

허멍 풀레(팔러) 댕기는데(다니는데). 감감 허는 것이 저 가시리 들어간. 가시리 들어간 훈 팽에
다¹⁷⁾ 떡 부려놓고. “미녕 삽서.” 허단 보니. 그 약 지레 가던 여자가 넘어가다가 ‘저거 아무 때
나신디(나에게) 저거 얼굴에 반해서 뜨라온 하르방이 분명허구나.’ 경 헤연 들어간. 그 할망네 집
이 메누리가.

“우리 집이 오면은 내가 사커매(사겠으니) 옵서.”

신집잇 하르방은 뜨란 들어간. 켓문을 열더니 미녕이니 베니 딱 담안 톡 웬 톡 잠가두고. 좋은 밥을 허연 훈 끼를 딱 맥이고. 그날 저녁이야 비로소 서로 언약을 맺고 훈 이불 소곱에 누원
자게도 웨고. 자게 웨연 훈을 이틀 잊단.

“이제랑 훈저(어서) 고향으로 갑서(가세요).”

갑서 허연 이젠 나오란 베려보니. 물도 아홉, 쉐도 아홉에다가¹⁸⁾ 곡식(穀食)을 잔뜩 실련,

“이걸 물양(몰고) 갑서.”

물아앗어네(몰아가지고) 그 말¹⁹⁾ 쉬(마소)를 떡 앞이 물아앗전 오는디. 질(第一) 뒤에 잇는 물이
오당보민(오다보면) 짐 투라져(비틀어져) 불곡(버리고), 발류당(바로잡다가) 보민(보면) 짐 투라져
불곡, 이놈으 거 짐 투라지니까는 털어지니깐(떨어지니까) 그것만 바루고(바로잡고) 바루고 허던
것이 이싱굴^{??}지 들어완. 들어오란 그 집이 뜰덜 불러놓고.

“이 곡식(穀食)덜 말[斗]로 웨라.”¹⁹⁾

겐(그래서) 이제 훈말 두말 막 웨여(헤아려) 오는디. 마지막엣 것이 웨단 보니까 이만한 베염
(뱀)이 훈나 거기에 잊어. 그 마다리(麻袋)에다가 떡 부떠(붙어) 앗어 잊어. 그 베염을 모신 게 칠
성(七星)으로 떡 모시난. 그날부떠 부자로 웨난. 마다리에 부떠온 칠성. 또 서부락(西部落)은 전싱
(前生) 궂은 심방. 거 유래(由來)가 웨여난 일이 잊십니다.

— 濟州市 龍潭洞 男巫 양창보 口誦

현용준·강정식·김현선, 『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』,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, 2006, pp.184-188.

17) 팽 : 말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릴 때 도움이 되게 납작한 큰 돌 따위로 만든 대(臺).

18) 물도 아홉, 쉐도 아홉 : 말도 아홉, 소도 아홉 마리. 부자(富者)의 재산(財產).

19) 웨라 : 헤아려라.